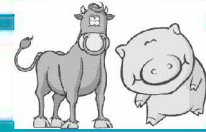


소· 돼지 가격전망



소

계절적 비수기, 약보합세 예상



찬바람이 부는 계절이 다가왔다. 이시기는 냉절도 끝나고 특별히 소비가 이루어질만한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비수기로 예년부터 소값이 하락하는 시기이다. 이와 맞물려 미산 쇠고기 수입·판매에 대한 이야기는 농가들의 시름을 더 늘린다. 지난달말 국내의 한 업체에서 미산 쇠고기를 들여와 유통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향후 국내의 소 시장 형성을 예측할 수 있어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의 메이저 업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나행인 것은 수준은 재개한다고 하여 소값이 폭락할까? 아니면 과동이 일어나는 불행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과거 소비의 70%를 차지했던 미산 쇠고기의 감미와 부산물, 뼈 등은 수입에서 제외되어 있고 국내 소비자들의 미산 쇠고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국내 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미 FTA와 관련 미산 쇠고기의 전면 개방을 요구하는 미국 정부의 요구를 우리 정부와 축산농가들이 얼마나 막아낼 수 있을지에 따라 국내 소값에 미치는 영향이 좌우될 전망이다. 농가 또한 앞으로의 진행 과정을 예의 주시하여 산지 소 사육두수를 늘이거나 번식률을 높여 스스로 자중수를 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당분간 호재가 없는 시장 이므로, 연말연시 소비증가가 일어날때까지는 큰 폭의 하락없이 약보합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돼지

김장철 소비증가예상

전문가들의 돼지값 회복세 전망에도 불구하고 양돈시장의 미래는 불안하다. 존하물량 증가와 소비위축으로 인한 돈육소비가 하락하는 시점에 미산 쇠고기 수입 제개와 사료값 인상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디군다나 작년말부터 계속된 돈가 고공행진으로 수입돈육이 국내 시장을 크게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절적 요인까지 발생하여 당분간의 큰 폭의 상승세는 보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고 이러한 암울한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달부터 실시했던 대형 유통업체들의 돼지고기 할인 행사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육가공업체들의 작업량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일선업체에서도 도매시장 가격에 맞춰 소비자 가격을 인하하여 판매하고 있다. 국내 시장을 잠식했던 수입돈육 또한 작업물량이 급속도로 줄고 있는 상황이다. 크게 우려됐던 미산 쇠고기 수입이 국내 소비자들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생각만큼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지의 돼지가 예년에 비해 많지 않아 2000원 이하의 돈가 과농 같은 사태는 재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향후 돼지값은 10월 말까지는 하락세를 보이나가 본격적인 김장철인 11월 말을 기점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다.

<이트뉴스 제공>

